

교양필수 과목 개설 건의문

AI 시대, 지역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시민 양성을 위하여

기초철학 · 현대사회학 · 국사

안녕하십니까. 올해 편입한 심리학과 24 학번 허주홍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 글을 읽어 주시는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석대학교 교양 교육이 더 깊고 넓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1. 건의 배경 및 시대적 흐름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깊은 윤리적·사회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AI는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 편향, 자동화에 따른 책임 공백, 정보 격차, 공동체 해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2026 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학교 철학과 경쟁률이 18:1을 기록하였습니다. AI 시대에 '철학적 사고'와 '인간적 판단력'이 생존 역량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사회적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한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AI는 계산하고 보여줄 뿐, 책임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대학이 기술을 가르치는 기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사회를 이끄는 인간을 길러내는 기관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에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AI 시대에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역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 개의 교양필수 과목 개설을 조심스럽게 건의드립니다.

2. 건의 과목 및 교육적 의의

① 기초철학 — 판단의 나침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2,400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오늘날 AI 시대에도 이렇게 다시 우리 앞에 놓입니다.

- AI의 판단은 과연 공정한가?
-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 인간은 어떤 기준으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가?

기초철학은 AI를 '이해하는' 학문이 아니라, AI를 '통제하는' 인간의 기준을 세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역량을 조금씩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윤리적 판단력 및 비판적 사고 능력
- 알고리즘 편향·책임 공백 문제에 대한 철학적 시각
- 인간 중심 가치 정립 및 기술 활용 기준 수립

무엇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교재에만 등장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정치학, 윤리학, 법학, 경제학, 심리학, 교육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문 분야의 교재 첫 페이지에서 반드시 마주치는 이름들입니다. 이 두 사상가의 사유는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자 공통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철학을 첫 학기에 함께 배운다는 것은, 학생들이 이후 어떤 전공을 공부하더라도 반드시 만나게 될 지적 뿌리를 미리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문이 공유하는 언어와 사고의 틀을 처음부터 익힐 수 있다면, 전공 학습의 깊이도 한층 더해질 것이라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② 현대사회학 — 사회를 읽는 해석의 렌즈

AI는 사회 구조와 산업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 플랫폼 권력, 자동화 노동 등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상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할 언어와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 기술이 사회 구조와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데이터·알고리즘·플랫폼이 형성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 이해
- 사회 내 정보 격차, 경제적 불평등, 소외 문제 해석
- 공동체 문제 해결의 참여자로서 사회적 책임 인식

현대사회학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개인으로서뿐 아니라, 사회 현안을 읽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③ 국사 — 지역과 공동체를 잇는 기억의 뿌리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지역과 국가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
- 공동체 의식과 시민적 책임감 함양
- 현재의 사회 문제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능력
- 개인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전환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국사 교육이 학생들을 '개인'에서 지역사회와 국가 안에서 정체성을 세운 시민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3. "지역사회의 일원"을 길러내는 대학에 대한 바람

이 건의의 핵심은 단순히 교양 과목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품격 있는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그 토대를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I 시대의 인재는 스펙이 아닌,
사회를 책임질 줄 아는 역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히 AI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네 가지로 여쭙보고 싶습니다.

-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 사회 구조와 현안을 분석하는 능력
- 공동체 속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능력

이 네 가지는 결국 철학·사회학·역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석대학교 출신 인재가 업무 현장에서 깊이 있는 사고로 제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품격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초 학문의 교육이 뒷받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 기대되는 효과

교육적 측면

- AI 윤리 및 비판적 사고 능력 강화
- 인문·사회 통합적 사고 기반 구축
- 전공 심화 학습의 철학적·사회적 토대 마련

사회적 측면

- 지역사회 참여 의식 및 공공성 인식 증진
-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시민 인재 양성
- 우석대학교 출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향상

대학 위상 측면

- "생각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 기술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교양 교육 모델 구축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위상 강화

5. 마치며

부족한 글솜씨로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초철학은 방향을 묻고, **현대사회학**은 현실을 읽으며, **국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알려줍니다.

이 세 축이 우석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교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그 길에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혜안과 결정이 함께하기를 감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초철학, 현대사회학, 국사의
교양필수 과목 개설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 년 심리학과 3 학년 편입생

허주홍 올림